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이타현청 국제정책과 소개 2023년 국제정책과 일동 인사드립니다! 오이타현



荻 貴伸

과장 **오기 다카노부**

방역 대책이 완화됨에 따라 드디어 국제 교류가 다시금 본격화합니다. 해외로 나아가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오이타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井川 浩昭

참사(총괄) **이카와 히로아키**

- 여권 심사 총괄
- 여권반 인재 육성



阿南 大輔

과장보좌(총괄) **아나미 다이스케**

- 해외 전략 추진(총괄)
- 과 인재 육성



難波 一尚

주간 **난바 가즈히사**

- 해외 전략 추진
- 외국인 인재 수용 및 공생 업무 (현 내 재류 외국인 지원)



清田 弘祐

주사 **기yota 고스케**

- 유학생 취업, 창업 담당
- 웨일스 MOU



安部 舞

주임 **아베 마이**

- JET 프로그램
- 국제교류원 담당
- 아시아 비즈니스 연수회



渡邊 美和

주임 **와타나베 미와**

- 여권 심사 및 발송/여권 업무 위탁
- 여권반 예산 담당



須藤 佳徳

주임 **스도 가호**

- 일본어 파트너스/인도네시아 교류 촉진
- 예산, 결산, 감사 담당



生野 志保

주사 **쇼노 시호**

- 유학생 장학금/홍콩 페어
- What's Up, Oita! 담당



한국 **盧知榮**
국제교류원 **노지영**



미국 **Austin Vaughn**
국제교류원 **오스틴 본**



영국 **Swara Fife**
국제교류원 **스와라 파이프**



중국 **楊江華**
국제교류원 **양장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히로세 전 지사님 감사합니다! 사토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이타현 지사 퇴임&취임 오이타현



히로세 전 지사(왼쪽), 사토 현 지사(오른쪽)

지난 4월 27일, 히로세 가쓰사다 전 지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히로세 체제 20년이 막을 내렸습니다. ‘현민 중심 현 정치’를 내세우며 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히로세 전 지사는 많은 직원들의 배웅 속에 미소를 지으며 현청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28일에는 사토 기이치로 지사가 첫 출근을 하며 새로운 오이타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이타시 출생으로 공선 5기 오이타시 시장을 역임한 사토 지사는 ‘안심하고 건강한 미래 만들기’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며,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한 지방 창생 및 현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사토 지사의 임기는 4월 28일부터 4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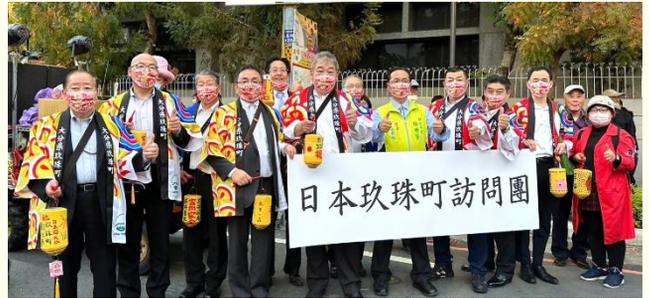
히로세 전 지사 배웅(2023.4.27)



사토 지사 환영(2023.4.28)

대만 철로 관리국&장화시에 다녀왔습니다

구스정 소식 구스정 玖珠町



1934년 구다이 본선의 전선 개통에 맞춰 완성된 구스정 소재의 ‘옛 분고모리 기관고’는 전성기에 증기 기관차 21대가 소속되었던 대규모 선형(부채꼴) 기관고로, 1971년의 철도 디젤화에 따라 그 역할을 다한 곳입니다. 한편 1922년에 지어진 대만의 ‘장화 선형 차고’는 현존하는 유일한 대만의 기관고이며 현재까지도 이곳에서 차량 55대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고의 인연을 바탕으로 2019년에 대만 철로 관리국, 2022년에 장화시와 우호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의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구스정장 방문단이 대만 철로국과 장화시를 예방하여 교류했습니다. 예방 중 방문단은 장화시에서 열린 ‘장화 설립 3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일본 구스정 방문단’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3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장화 선형 차고를 방문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전차대와 공원을 견학했습니다.

한편 린시시안 장화시장장은 ‘2023년 가을에는 구스정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했으며, 구스정은 구스정 중학생 홈스테이 수용, 기관고를 활용한 온라인 교류 등 다양한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구스정의 옛 분고모리 기관고와 대만의 장화 선형 차고를 방문하셔서 100년의 역사를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다시금 관광객의 발길로 북적이는 활기찬 유후로 떠나요!

유후시 소식 유후시 由布市



유후카와 협곡 팩 래프트 투어
(由布川峡谷 バックラフトツアー)

등 체력이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는 자연이 만들어 낸 신비롭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

초경량 보트를 타고 유후카와 협곡 깊은 곳으로 모험을 떠나는 팩 래프트 투어. 보트를 이고 걷고, 큰 바위를 넘는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 '노루쿠'
(グリーンスローモビリティ「ノルク」)

는 관광 모빌리티. 노루쿠를 타고 유후인을 즐겨 보자. (*문의: 유후시 관광객 인포메이션 센터)

시속 20km 미만으로 달리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유후인 역을 출발하여 플로라 하우스 온천, 우나기 히메 신사를 지나



쓰카하라 고원 자전거 렌탈
(塚原高原 レンタルサイクル)

부터 보기 드문 탠덤 2인용 자전거까지 다양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사전 예약 추천)

웅대한 산과 광활한 초원, 근사한 가게가 있는 쓰카하라 고원은 자전거를 빌려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1인용 자전거



유후다케 산 입산 허가
(由布岳 山開き)

지난 5월 14일에는 유후다케 산 정면 등산 입구에서 등산객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 기원제가 열렸다. 늘 안전에 유의!

지난 5월 14일에는 유후다케 산 정면 등산 입구에서 등산객의 안전을 기원하는 안전 기원제가 열렸다. 늘 안전에 유의!

벳푸시 창조 교류 거점 '트랜짓(TRANSIT)' 오픈

벳푸시 소식 벳푸시 別府市



photo: Takashi Kubo

국내 제일의 온천 관광지 벳푸에서는 최근 문화·창조 활동도 활발합니다. 온천은 물론 온천 수증기가 피어 오르는 풍경, 역사가 느껴지는 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산업... 이처럼 매력이 가득한 마을을 제작 거점으로 삼고 활동하고자 이주를 희망하는 크리에이터와 예술가가 늘고 있습니다.

트랜짓에서는 지역과 창조력을 연결 지어 보다 매력적이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①벳푸시의 문화 예술 정보 공유 ②창조적 인재의 이주 지원 및 활동 소개 ③지역 과제·기업 고충 해결을 위한 창조적 인재 알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여 '일상 생활의 일부로서의 예술'을 만나고, '예술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움직임의 확산'을 실감할 수 있는 거점이 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술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다

크리에이터와 예술가의 아이디어 및 기술로 지역 주민,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크리에이터와 예술가의 이주/정착/육성을 지원하다

크리에이터와 예술가를 위한 제작 거점과 이주 장소를 알선하고 이주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문화 관광 정보를 전하다

벳푸시 중심의 문화 예술 행사 및 관련 관광 정보를 웹 사이트, SNS 등을 통해 전합니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스야노사카 고개

직접 입고, 만들며 에도 시대의 정취를 느껴 보자

기모노 & 화과자 체험 기쓰키시 杵築市

언젠가 후쿠오카 공항의 관광 안내소에서 기쓰키 관광 안내 팸플릿을 본 적이 있는데, 기모노 차림의 외국인이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기쓰키에서 일본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하던 표지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기억이 난다. 그 후로 계속 궁금했던 기쓰키에 지난달 기회가 되어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곳에서 한 체험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입는 데에 약 한 시간 소요, 대여 시간 별도 제한 없음

일반적인 성하 마을의 형태와 달리, 가운데에 상인 마을을 끼고 남북으로 무가(武家) 저택이 위치했다고 하여 ‘샌드위치 성하 마을’이라 불리는 기쓰키 성하 마을은 전국 최초로 ‘기모노(일본 전통 의상)가 잘 어울리는 역사적 거리’로 선정된 곳이다. 에도 시대의 정취가 느껴지는 이곳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 기모노 대여점 ‘와라쿠안’에서 기모노를 빌려 입었는데, 기모노의 문양과 색상이 다양하여 선택 폭이 넓고 직원분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어 좋았다.



기쓰키성 전망대

예쁜 기모노를 입고 기쓰키의 성하 마을을 돌아다니며 발견한 인생 사진 스폿은 다음과 같다.

포인트.1 <기쓰키성 전망대> 성하 마을의 유명한 언덕 ‘시오야노사카 고개’를 올라 ‘기쓰키 성하 마을 자료관’을 지나면 푸른 바다와 함께 멀리 ‘기쓰키성’이 보이는 ‘기쓰키성 전망대’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성을 바라보는 포즈를 취하며 기모노를 입은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포인트인데, 여성용 기모노를 입었다면 예쁘게 묶인 오비(허리띠)가 일본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므로 꼭 찍어 보자.



기타다이 무가저택 터

포인트.2 <기타다이 무가저택 터> 다음으로 ‘시오야노사카 고개’의 맞은편 언덕인 ‘스야노사카 고개’를 올라 ‘기타다이(북쪽 지대) 무가저택 터’에 가보자. 기모노 차림으로 격조 높은 에도 시대 상급 무사 저택의 흥벽과 돌담을 따라 걷고, 거문고를 연주해 볼 수 있는 ‘이소야 저택’, 일본도를 들고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오하라 저택’에 들어가는 등 거리를 만끽하노라면 마치 에도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제과점 '마쓰야마도' 화과자 만들기 체험

만약 성하 마을 산책만으로는 무언가 아쉽다면 전통 체험을 통해 오감으로 문화를 느껴 볼 것을 추천한다. 기쓰키시 관광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도, 화과자 만들기, 게타(일본 나막신) 끈 달기, 꽃꽂이 등 다양한 체험을 예약할 수 있는데, 그중 제과점 '마쓰야마도'의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해 보았다.

'화과자'는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화려하고 예쁜 모양의 일본 과자로, 단맛이 강해 말차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과자를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마쓰야마도'의 체험 내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체험 내용

봄에는 꽃 모양의 화과자와 사쿠라모찌, 여름에는 양갱, 젤리 등 계절에 맞는 화과자를 만든다고 한다. 이번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백앙금에 벚꽃잎 모양을 찍어 내거나 형겅으로 감싸서 동백꽃 모양을 만드는 등의 체험이 진행됐는데, 20년 경력의 화과자 장인 선생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알려 주시고 체험하는 내내 무한 칭찬(!)을 해 주신 덕분에 즐겁게 만들 수 있었다. 늘 먹기만 했던 화과자가 새롭게 느껴지는 귀중한 체험이었기에 추천한다.



무사 저택의 모습을 간직한 오히라 저택

'규슈의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기쓰키시.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 있는 다양한 전통 거리를 다녀왔지만, 기쓰키는 '기모노가 잘 어울리는 역사적 거리'로 선정된 만큼 차별점이 명확했던 것 같다(기모노 착용 시 '모든' 공공 문화 관광 시설 무료 이용 가능, 일부 음식점 할인 제공 등).

또한, 소도시임에도 다양한 체험을 갖추고 있으며 온라인 예약이 원활하다는 큰 장점을 갖춘 기쓰키에서 일본의 전통을 고스란히 느끼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기모노 대여점 '와라쿠안'

(レンタルきもの和楽庵) ※예약필요



- 주소: 杵築市杵築372-4(〒873-0001)
- 접수: 10:00~14:00(※반납: 16시까지)
- 체험료: 3,000엔(※가방, 머리 장식 등 별도)



제과점 '마쓰야마도'

(御菓子処 松山堂) ※예약필요



- 주소: 杵築市杵築173(〒873-0001)
- 운영 시간: 08:30~18:30(부정기 휴무)
- 체험료: 2,000엔 / 체험 시간: 약 1시간



오히라 저택

(大原邸)

- 주소: 杵築市杵築207(〒873-0001)
- 운영 시간: 10:00~17:00(연중무휴)
- 입장료: 대인 300엔 / 초·중학생 15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심 속의 꽃밭에서 봄을 즐긴다

오카바루 꽃 공원 튜립 축제 오이타시 大分市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나에게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자’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계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보고... 사소하지만 삶의 가치를 올려 주기에 올봄에는 무슨 꽃을 보러 갈까 고민하던 중, 오이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오카바루 꽃 공원’에서 튜립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여 다녀왔다.

‘NPO 법인 오카바루 꽃 피우자 모임’과 ‘오카바루 꽃 공원을 운영하는 추진 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3월 21일부터 4월 16일까지 개최된 올해 축제에서는 3만 5천 평 부지의 꽃밭에서 16종 이상의 다양한 품종 및 색깔의 튜립 약 10만 송이를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만 송이나 더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 11월에 시민 400여 명이 직접 알뿌리를 심고 가꾼 것이 꽃피운 것이다.

축제가 열린 오카바루 꽃 공원은 ‘시민 참가형 꽃 공원’으로 시민과 함께 직접 공원을 만든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축제 현장에서 만난 NPO 법인의 회장 기쓰(木津) 씨는 “오이타 시내에서 튜립을 볼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넓다”라며 “도심 중심에 이렇게 자연이 있는 곳은 드물기에 숨은 명소다”라고 이야기했다. 내년 축제에서 꽃피울 튜립을 심고 싶다면 10월 20일까지 사무국으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 보자.

※튜립 품종 명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화이트 마블



스트롱 골드



크리스마스 드림



프리티 러브

퍼플 플래그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이렇게 특별한 튜립을 보러 다녀온 4월의 어느 날, 공원에 도착하자 아침에 비가 내린 탓에 튜립의 꽃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언뜻 튜립이 아닌 꽃(?)만 가득 피어있는 것처럼 보여서 처음엔 시기를 잘못 맞춰 왔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나 꽃밭을 자세히 보니 모두 꽃잎을 활짝 펼친 상태의 튜립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평소에 ‘튜립’이라 하면 꽃봉오리가 오므라져 있는 모습만 떠올렸기에 이번 축제를 통해 다양한 모습의 튜립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3월 무렵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꽃의 수요가 줄어 많은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중에서도 네덜란드 화훼 농가에서 튜립 1억 4천만 송이를 포함하여 약 4억 송이의 꽃이 버려졌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최근 한국은 코로나19 비상상태 종식 선언을 했고, 일본은 코로나19의 감염병 법적 분류 등급이 조정되며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워진 만큼 계절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다시금 많이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카baru 꽃 공원
(おかばる花公園)

- 주소: 大分市横尾1008(〒870-0126)
- 2023 튜립 축제 기간: 3/21~4/16, 09:00~15:00
- ※2023 네모필라 축제 기간: 4/17~5/4
- 입장료: 무료
- 튜립 알뿌리심기 문의: 097-520-2764(일본어 대응)

※튜립 품종 명칭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엠프스타



위싱턴



아스펜



몬타나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흐드러지게 핀 보랏빛 등나무꽃의 달콤한 향연

센자이 농원 등나무꽃 우사시 宇佐市

여러분은 무더운 여름날의 햇빛을 피해 운동장이나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놓여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벤치에서 잠깐 쉬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중학생 때 그런 벤치에서 종종 쉬곤 했는데, 그때마다 벤치 위에 자라난 덩굴의 나뭇잎을 바라보며 ‘참 푸르다’라고 생각했었다. 여름엔 푸르지만 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나뭇가지만 남던 이름 모를 그 식물이 말로만 듣던 ‘등나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며 적잖이 놀라기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식물의 ‘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마침 우사시의 ‘센자이 농원(千財農園)’에서 그 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인생 첫 등나무꽃을 보기 위해 다녀왔는데, JR 야나기가우라(柳ヶ浦)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약 20분 소요) 이곳은 꽃밭이 아니라 사실 ‘주식회사 센자이 농원’이 관리하는 “차밭”이다. ‘등나무꽃을 보러 간다더니 왜 차

밭에 가나’라며 의아해할 독자님, 조금만 입구를 지나면 2,400평 규모의 언덕에 있는 등나무 250여 그루에서 피어난 꽃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봄의 햇차를 사러 농원에 방문한 고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 시기에 만개하는 등나무꽃을 차밭 옆에 심어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꽃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곳이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따뜻한 마음에서 태어난 이 꽃밭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야생 등나무를 연상케 하듯 무작위로 자라 자연스럽게 얽혀있는 등나무를 가까이서 관찰하며 여유롭게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등나무꽃의 개화 시기는 보통 4월 말~5월 초인지만 황금연휴 무렵이면 등나무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하는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멀리서 센자이 농원을 찾는다. 나 역시 우사의 대표 등나무꽃 명소에서 활짝 핀 꽃을 보고자 나름 날짜를 계산·예측하여 5월 첫날에 방문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전 세계적으로 봄꽃의 개화가 빠른 탓에 등나무꽃도 이미 4월 말에 만개한 후 대부분 진 상태였다.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자연의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풍경을 보지 못해 아쉬워하던 그때, <위쪽에 흰색 등나무꽃이 피어 있습니다>라고 적힌 작은 입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취재를 위해 왔는데 꽃 사진 하나 제대로 찍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는 없는 터라, 반신반의하며 입간판에 그려진 화살표의 방향을 따라 언덕을 올라갔더니 눈앞에 새하얀 세상이 펼쳐졌다. 하얀 포도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것처럼 흐드러진 등나무꽃 커튼과 그 사이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빛, 활짝 핀 꽃에서 풍겨 오는 달콤한 향기, 그리고 그 향기에 이끌려 날아든 어리호박벌(!)까지….



꽃에 벌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새까맣고 엄지손가락만 한 벌이 귤가에서 날갯짓 소리를 내는 건 벌레를 무서워하는 나에겐 너무나도 위협적이어서 솔직히 꽃에 다가가는 게 정말 힘들었으나, 여러분께 보여 드릴 사진을 찍겠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 내어 찍어 온 사진이니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벌은 무서웠지만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나무꽃이 귀여워서 멀쩡이 떨어져 한참을 바라보다가 ‘기간 한정 센자이 농원 등나무꽃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을 발견했다. 단 것을 선호하지는 않지만 특별해 보여서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보라색과 흰색이 조화롭게 섞인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을 베어 무니 달콤하고 향기로운 등나무꽃 향이 입 안에 기분 좋게 퍼졌다.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꽃 향이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자니 이 봄을 온전히 즐기는 것 같아 참 행복했다. 이렇게 넓은 규모의 등나무꽃 명소는 쉽게 만나볼 수 없으니 여러분도 봄에 우사에 간다면 방문하길 추천한다.



센자이 농원 등나무꽃밭 千財農園 ふじ園

- 주소: 宇佐市四日市4388(〒879-0471)
- 관람 시간: 09:00~17:00
※등나무꽃 개화 시기: 4월 말~5월 초
- 관람·주차 요금: 무료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6화

노지의
학창시절 다이어트 이야기 3

- 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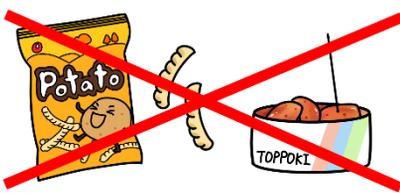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학생인지라
시간도, 할수있는 방법도 많지 않았기에

잠에오면
그시...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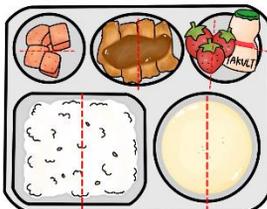
학교에서 먹는걸 줄이로 마음먹고는
그 어떤 간식도 먹지않았고
(정말 단하나도 안먹었다!)



점심과 저녁 급식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반년에 걸쳐 8키로를 감량하는데 성공했다!

※ 방은양의 1/2만 섭취

깍두기 2개
돈까스 2조각
밥 1/2공기



딸기 1.5개
요거트 1/2모금
스프 1/2그릇

3학년 때 다시 간식을 먹긴 했지만
반식만큼은 고등학교 생활 내내 유지했는데



당지 친구들은 내가 반식을 하니
맛있는 반찬을 더 먹을수 있다며 좋아했었다?~



암튼 사소한 계기로 시작했던 그 다이어트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강한 의지로 이루어낸
경험이었기에 평생 못잊을 것 같다! 



여
노지(17세)
인생 최저
몸무게 시절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3년 4·5·6월(제82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7화

1화에서 잠깐 등장한 적이 있는데
내 취미는 '라탄공예'이다.



'라탄 공예'는 대나무 공예처럼
나무를 엮어 물건을 만드는 공예인데,



재료가 환심의 종류가 여러가지이고
원하는 색으로 직접 염색도 할 수 있어



작은 소품부터 커다란 바구니까지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공지> 6월호 만화는 쉬어갑니다
기다려 주신 독자님들께 죄송한 말씀 전합니다.



이 취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못오고 있던 때에



그걸 듯한 취미를 만들어 보자며
당시 유행하던 걸 배우게 시작이었는데
꽤나 재미있어서 한동안 푹 빠졌었다.



최근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만들어야겠다!



라탄공예:
환심 티라레 소분하기
→ 물에 불린 환심 염기
→ 자연 바람에 잘 말리기  중요!!
→ (선택) 염색하기/
바나쉬칠 하기
→ 완성!